[전력기기]

Nov 28, 2025

글로벌 3Q25 Earning Call: 우리가 맞이한 Apollo 11

Overweight 유지

방향성 (1): 수직 통합 계열화

하반기 Eaton은 액체 냉각 솔루션社 Boyd, Quanta Sevice는 저압 전기플랫폼 솔루션社 Dynamics System, GE Vernova는 전력/배전 변압기 제작 합작법인(GE Prolec)의 나머지 지분 50%, Hubbell는 커넥터 솔루션社 DMC Power인수 진행. 이러한 인수 배경으로 **Eaton/GEV/Quanta Service 공통적으로 통합(Fully-Integrated) or 풀스택(Full-Stack) 솔루션 제공**을 강조. 이는 1) 그리드 양방향화 및 대형부하 등장에 따른 복잡성 증가, 2) 고객사 성격 변화(유틸리티 -> 테크)에 따른 경쟁력 강화 수요. 테크 업체가 그리드 투자에 합류하게 되며, 기존 유틸리티社와 달리 유지/보수에 낮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어, 전력기기社 서비스 영역 확장이 하나의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게 될 것.

Eaton은 데이터센터 고객의 소수의 공급업체 선호한다는 언급 고려시, 글로벌 레퍼런스 보유한 고압기기 업체의 침투는 어렵지 않을 것. 다만, 배전영역의 경우 1) 하이퍼스케일러向 소수의 공급업체로의 2차 Vendor 진입, 2) 소규모 데이터센터向 공격적 M/S 확장의 두 가지 전략 고려 필요.

방향성 (2): 배전/DC로 모아지는 시선

GEV는 'Power-to-Rack' 이라는 방향성 제시. 이는 특정 산업 혹은 데이터센터 위한 전기장비 갖춘 통합 솔루션을 의미. Hitachi는 'Edge-Grid' 강조하며, 향후 **시장의 발전이 배전 영역에서 등장할 것으로 전망.** NVDIA가 제시한 '800V DC 아키텍처' 역시 배전영역 진화 가능성 암시. 결론적으로 빠른 공급 가능한 DC 발전원/전력 효율성 개선 수요로 MV/LV의 DC 관심도 높아지는 시기 돌입.

단기적인 실적 영역도 긍정적. **Eaton/Hubbell T&D 유통 재고 정상화 및 9/10월 주문 증가 언급. 유통 채널 확장 필요한 LS ELECTRIC, 유틸리티社 수주 둔화되었던 산일전기 수혜** 예상.

방향성 (3): 수급 불균형 유지 – Speed to Power

Siemens Energy Investor Day에서 북미/유럽 주요 업체들의 CAPA 확장 고려된 수급 전망치 제시. **30년도에도 10% 내외의 공급 부족 유지 전망.** Hitachi Energy Investor Day에서는 부족한 CAPEX 우려가 등장.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양사는 계약 기반의 보수적 CAPEX 진행 목표. '속도'에 대한 시장 선호도 재확인. Quanta Service '모든 이해관계자의 최우선 과제는 속도', Xcel Energy 'Speed to Power 가장 중요' 언급. **주요 설비 확보 후, 이에 맞춘 CAPEX 실시 전략 실시 중.** 다만, 속도를 위한 BTM(On-Site) 선호도 여전히 높으나, 데이터센터社 선호도는 '그리드 연결'이 최우선임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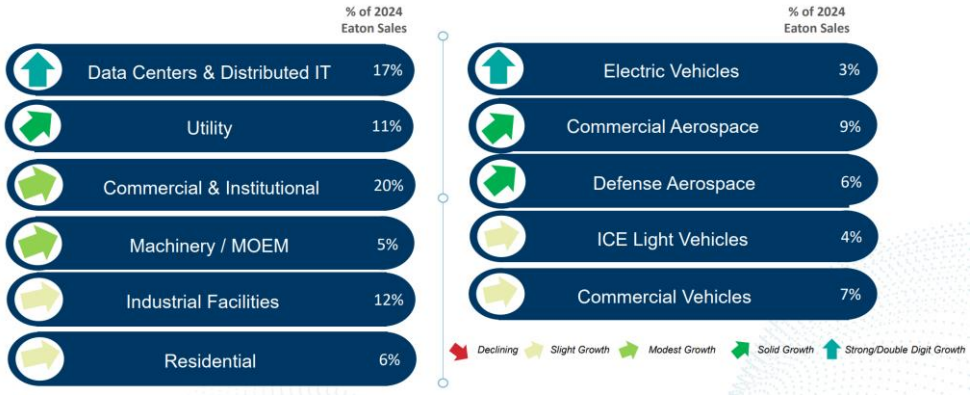
속도가 우선시될수록 LS ELECTRIC 수혜 예상. 주요 업체들의 일반적인 납기 6~12개월 수준이나, 최근 빅테크向 수주(배전기기/배전반/변압기) 계약기간 5개월 이내. 25년 10월 준공된 부산 공장까지 고려시, 가용 CAPA 충분한 상황으로 Package 수주 확장 기대 가능.

방향성 (4): 다시 발생한 Utility CAPEX 증분, 요금 전가 우려 해소

AEP/Xcel Energy 중기 CAPEX 계획 업데이트. **기존 대비 +30% 이상으로 대규모 상향 조정 발생.** FCF 및 재무구조 압박으로 단기 CAPEX 추가 확장 여력 제한적으로 보았으나, 우호적 요금/지출 정책 변화 및 강한 수요에 따른 증분 여력 확보. 조지아에서 통과된 Minium Bill(Page 18) 등 **대형 부하 위한 요금제/정책 통과가 다수 진행되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해소**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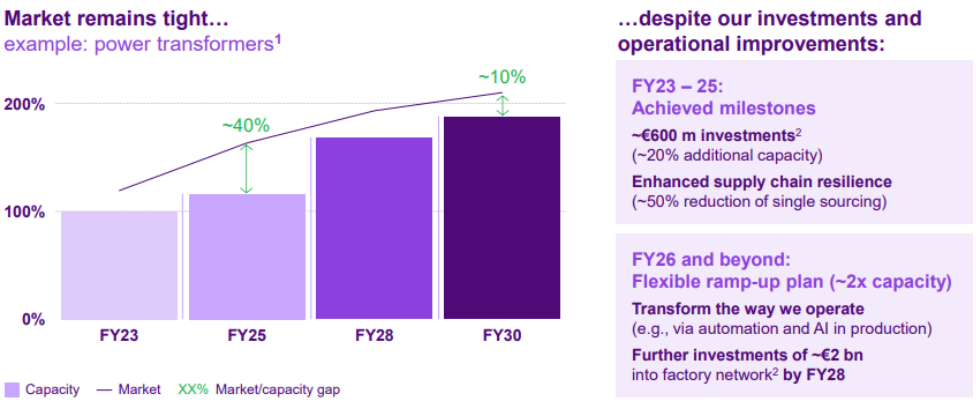
[자동차, 전력기기] 김광식
3771-6669
20250021@iprovest.com

[도표 1] Eaton: FY26 전방 시장 전망 – 데이터센터/분산 IT, 유틸리티, 전기차 고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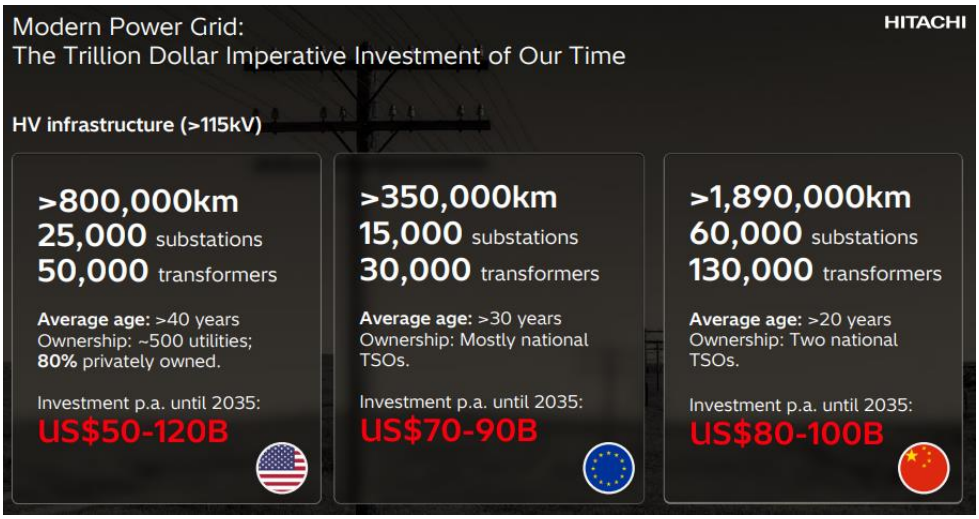
자료: Eaton,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Siemens Energy: 주요 업체 전력 변압기 CAPA 확장에도, FY30 공급 수급 불균형 −10%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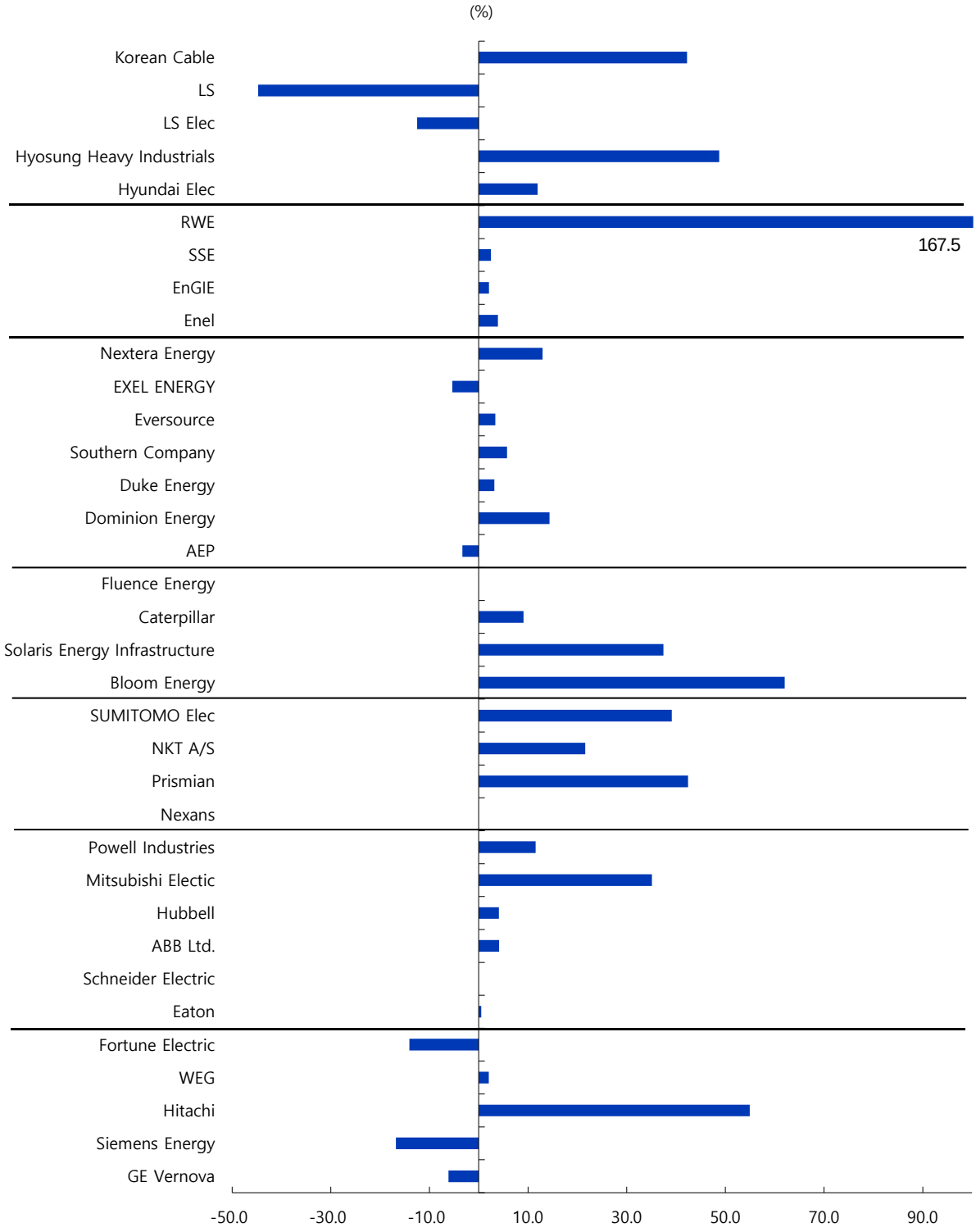
자료: Siemens Energy,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Hitachi: 교체 수요 지속 – 90% 비중의 고객 日 '보유 변압기의 절반 이상이 40 년 이상의 내용연수'



자료: Hitachi,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CY3Q25 Net Income(조정) 컨센서스 대비 괴리율 (단위: %)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글로벌 전력기기 PEER TABLE (25.11.27) (단위: 백만달러, %)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LS ELECTRIC	일진전기	산일전기	FORTUNE ELECTRIC	GE Vernova	EATON CORP	HITACHI	SIEMENS ENERGY
시가총액	(백만달러)	18,903	12,085	9,099	1,759	2,742	7,626	151,405	127,469	138,527	111,338
주가	(현지통화)	772,000	1,908,000	446,500	54,300	132,600	757.0	558.0	328.2	4,760	112.1
매출액	2024	2,436.6	3,589.9	3,338.3	1,156.7	244.9	629.0	34,935.0	24,878.0	62,908.9	38,682.3
	2025E	2,753.7	4,058.1	3,344.5	1,314.3	344.8	818.0	37,313.6	27,454.8	65,123.4	45,905.7
	2026E	3,272.4	4,681.4	3,900.4	1,428.6	442.3	995.3	41,459.6	30,112.2	68,703.9	51,284.7
	2027E	3,724.2	5,282.5	4,420.3	1,501.0	544.8	1,140.2	47,350.5	32,634.2	74,739.9	57,622.9
매출액	2024	17.7	9.0	3.1	21.2	49.1	41.0	5.1	7.3	-11.7	12.8
증가율	2025E	13.0	13.0	0.2	13.6	40.8	30.1	6.8	10.4	3.5	18.7
(%)	2026E	18.8	15.4	16.6	8.7	28.3	21.7	11.1	9.7	5.5	11.7
	2027E	13.8	12.8	13.3	5.1	23.2	14.6	14.2	8.4	8.8	12.4
영업이익	2024	490.6	265.8	285.8	58.5	80.1	152.3	471.0	4,632.0	5,612.3	190.4
	2025E	633.1	477.9	292.5	91.4	123.1	199.8	1,884.1	5,402.8	6,872.8	2,862.9
	2026E	807.9	675.5	389.8	112.7	170.1	259.5	3,977.8	6,475.0	7,788.8	5,803.9
	2027E	975.3	867.1	480.0	131.3	218.1	302.0	6,039.1	6,957.8	9,065.4	8,192.5
OPM	2024	20.1	7.4	8.6	5.1	32.7	24.2	1.3	18.6	8.9	0.5
(%)	2025E	23.0	11.8	8.7	7.0	35.7	24.4	5.0	19.7	10.6	6.2
	2026E	24.7	14.4	10.0	7.9	38.4	26.1	9.6	21.5	11.3	11.3
	2027E	26.2	16.4	10.9	8.7	40.0	26.5	12.8	21.3	12.1	14.2
EBITDA	2024	538.4	316.1	369.2	68.1	82.2	159.4	1,643.0	5,779.0	8,440.9	1,834.7
	2025E	681.1	537.1	380.4	110.8	124.3	203.6	3,332.1	6,542.0	9,231.4	4,950.3
	2026E	861.7	738.7	485.4	134.4	167.3	280.1	5,274.6	7,421.3	10,286.8	7,625.4
	2027E	1,027.6	934.1	579.0	140.3	207.2	357.7	7,469.0	8,170.0	11,545.4	10,122.8
EBITDA	2024	22.1	8.8	11.1	5.9	33.5	25.3	4.7	23.2	13.4	4.7
Margin	2025E	24.7	13.2	11.4	8.4	36.0	24.9	8.9	23.8	14.2	10.8
(%)	2026E	26.3	15.8	12.4	9.4	37.8	28.1	12.7	24.6	15.0	14.9
	2027E	27.6	17.7	13.1	9.3	38.0	31.4	15.8	25.0	15.4	17.6
순이익	2024	367.8	163.3	175.1	33.9	61.4	133.4	1,552.0	3,794.0	3,802.8	-180.7
	2025E	479.4	341.7	199.4	63.6	101.3	163.2	2,116.9	4,245.0	5,294.6	2,058.0
	2026E	626.6	495.4	280.6	79.9	136.3	235.2	3,616.1	4,947.0	4,904.3	4,058.8
	2027E	751.6	650.5	354.7	93.1	173.7	270.3	5,166.7	5,590.5	6,501.9	5,706.0
NPM	2024	15.1	4.5	5.2	2.9	25.1	21.2	4.4	15.3	6.0	-0.5
(%)	2025E	17.4	8.4	6.0	4.8	29.4	19.9	5.7	15.5	8.1	4.5
	2026E	19.1	10.6	7.2	5.6	30.8	23.6	8.7	16.4	7.1	7.9
	2027E	20.2	12.3	8.0	6.2	31.9	23.7	10.9	17.1	8.7	9.9
P/E	2024	27.4	16.4	19.9	27.7	21.9	37.7	48.4	33.3	31.0	36.8
(배)	2025E	40.0	36.4	45.6	26.4	27.7	48.1	74.4	27.1	26.7	32.6
	2026E	30.5	24.8	33.0	21.1	20.5	35.2	42.5	23.9	23.4	24.2
	2027E	25.3	18.9	26.3	18.7	16.1	29.6	29.4	21.2	20.0	18.8
P/B	2024	9.2	1.9	2.6	2.6	4.8	18.6	9.5	7.1	3.2	4.4
(배)	2025E	14.1	7.6	6.6	4.4	7.2	22.0	14.8	6.5	3.5	7.3
	2026E	10.6	5.9	5.7	3.8	5.7	16.8	11.8	5.9	3.2	6.1
	2027E	8.1	4.6	4.9	3.2	4.5	11.9	9.2	5.3	2.9	5.1
EV/EBITDA	2024	18.4	10.7	10.6	14.0	17.4	31.2	51.3	23.9	-	-
(배)	2025E	27.3	24.1	25.2	16.1	21.9	37.8	43.4	21.0	13.6	15.1
	2026E	21.6	17.5	19.7	13.2	16.2	27.5	27.4	18.5	12.1	11.9
	2027E	18.1	13.9	16.5	12.9	13.1	21.5	19.4	16.8	10.9	9.9
ROE	2024	39.3	14.9	13.4	10.6	29.9	58.3	18.3	20.2	10.3	-1.7
(%)	2025E	40.1	22.8	15.1	18.0	28.7	49.3	20.7	23.2	13.5	25.2
	2026E	39.5	26.8	18.4	19.5	29.3	52.7	30.6	24.3	14.2	27.9
	2027E	36.3	27.5	20.1	18.3	28.8	46.5	33.8	24.7	14.9	30.8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aton: 강해지는 공급망 통합, 높아질 경쟁력

Eaton의 3분기 실적은 부합 수준. EA(Electrical America) 부문에서 주택(Residential) 수요 약화 및 출하 지연으로 2분기 대비하여 외형의 Organic Growth 둔화 발생한 영향. 그럼에도 수익성은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 달성(OPM 30.3%, Yoy +0.2%p). 수주 측면에서는 Book-to-Bill Ratio EA 1.1x, EG 1.0x, Aerospace 1.1x으로 EA의 수주잔고 $ 120억, +20% YoY 기록하며 성장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 가능한 내용 발표.

회사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Boyd $95억 딜 클로징. Boyd는 '글로벌 액체 냉각 선도 업체' 로 소개. 26년 매출액 $ 17억, 조정 EBITDA Margin 25% 달성 예상하여, EV/EBITDA 22.4x 수준.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내 Portion 확장 기대 (기존 $ 120~240만/MW + $ 50만/MW)하며, **'칩-랙-화이트 스페이스-그레이 스페이스-그리드-소프트웨어·서비스까지' 풀스택 확보했음을 강조**. 경영진은 해당 딜이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고객사들의 선호도 변화도 중요하다고 언급.

'데이터센터 고객들이 점점 강력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소수의 공급업체로 공급망을 통합하고, 이를 통해 성능을 개선하고 배치를 더 빠르게 하고자 하기 때문'

데이터센터 관련 3분기 매출은 +40% YoY 발생. 미주/글로벌 데이터센터/하이퍼스케일러 수주 +70% YoY 기록, Rolling 12M Book-to-Bill은 1.7x. 향후에도 데이터센터 시장에 대해 17% 이상 성장 이어나갈 것 확신. 미국 내 3Q25 신규 발표 Mega-PJT 규모 $ 2,390억 (+18% YoY)로 50% 데이터센터, 50% 산업/인프라 PJT로 다변화 되어있음을 강조. 전체 백로그(`23~) 규모는 $ 2.6조 (+29% YoY)로 Eaton이 확보한 대형 PJT 수주는 약 $ 20억, 협상 중 파이프라인은 약 $ 40억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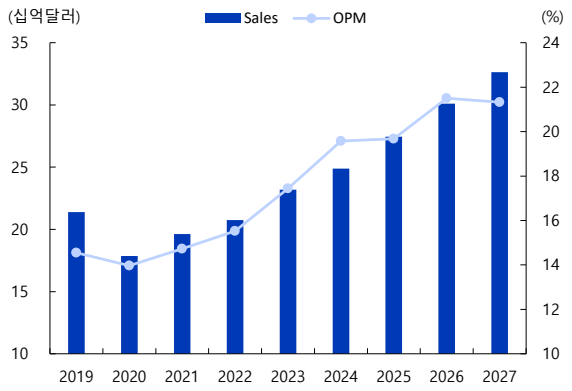
채널 재고에 대해서도 주택용 시장 정상화 시그널 보이고 있으며, 유틸리티 주문량도 강하게 돌아오고 있음을 확인. 이는 북미뿐 아니라 EMEA에서도 두 자릿수 성장으로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25년까지 투자/증설 단계로 보고 있으며(EA 12개 공장 증설/램프업 진행 중), 26년에 램프업 진행하며 점차 수익성 상승하는 추세를 기대하고 있음을 언급.

[도표 6] CY3Q25 서프라이즈율

($, 백만$)	발표	컨센서스	*괴리율 (%)*
EPS, 조정	3.07	3.06	*0.4*
EPS, GAAP	2.59	2.72	*-4.8*
매출액	6,988	7,077	*-1.3*
순이익	1,199	1,193	*0.5*
EBITDA	1,897	1,699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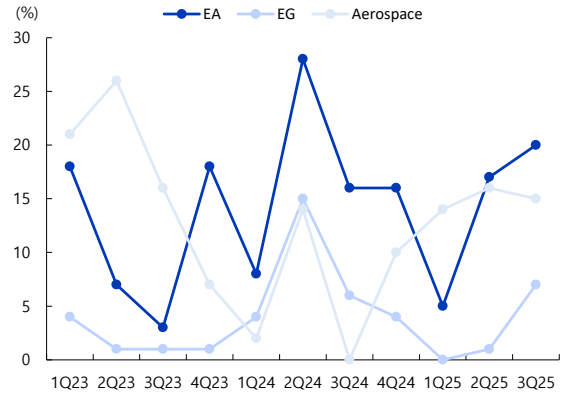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분기별 YoY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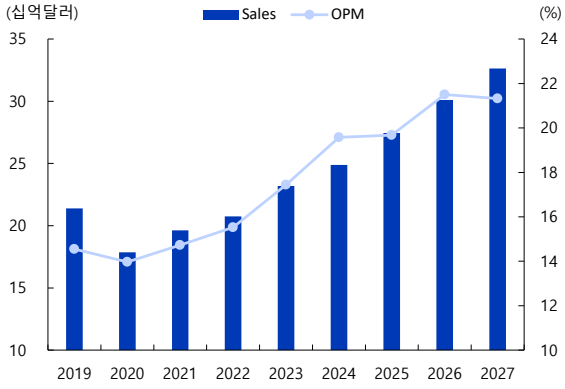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분기별 수주잔고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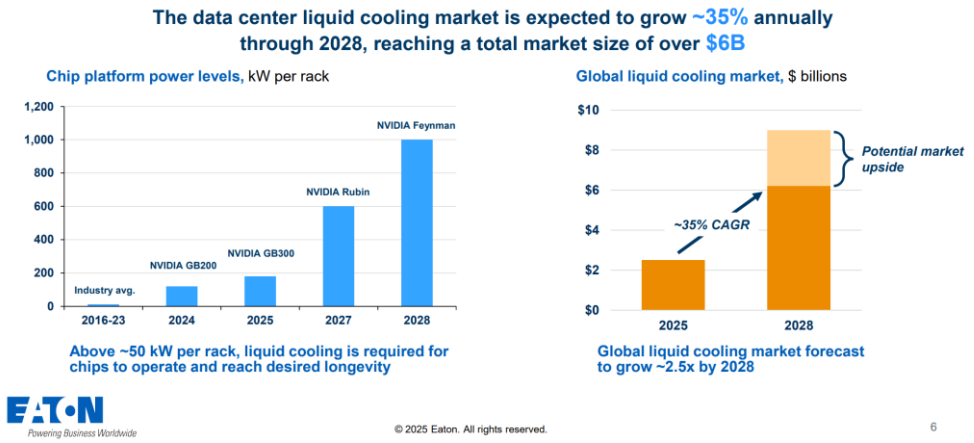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9] 연간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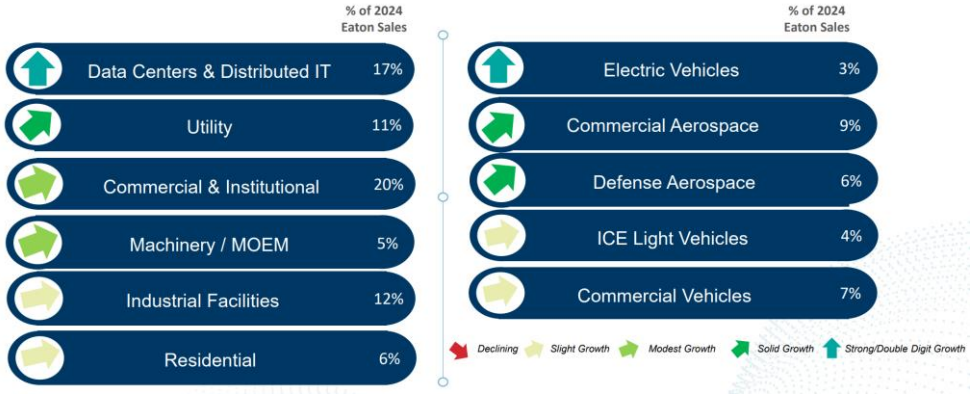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NVDIA 세대별 전력 소모량 및 액체냉각 시장 규모 전망



자료: Eaton,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FY2026 전방 시장 성장 전망



자료: Eaton,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GEV: 점차 강해질 북미 장악력

GEV 3분기 실적은 EPS 하회했지만, 매출액/EBITDA는 소폭 상회/부합 수준의 실적 기록.

주요한 부분은 Prolec 인수로 파트너사인 Xignux(멕시코)으로부터 합작법인(GE Prolec) 지분 50% $ 52.8억에 인수. 회사가 발표한 25/28년 EV/EBITDA 13.9/9.4x 수준. 기존에는 JV 계약상, 북미 시장에서 Prolec GE가 변압기에 대한 독점권 보유. **인수 통해 미국 내 고압-중저압에 대한 Total Solution을 제공 가능.** 단기적으로 북미 지역에서의 상업적 시너지 효과 발생하며, 중장기적으로 북미 외 지역으로의 확장 기대. 동시에 HVDC 변압기도 현지 생산 기회 제공.

수주 성과도 뚜렷한 성장. 전사 수주잔고 $ 1,357억 (+15% YoY) 기록, Power(Gas) $ 841억 (17.9% YoY), Electrification $302억(+38% YoY)로 잔고 증가 견인. Book-to-Bill Ratio는 Power/Electrification 1.6/2.0x으로 성장추세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나는 중.

Electrification부문 매출액 $ 26.0억(+32% YoY), EBITDA $3.9억(96% YoY, Margin 15.1%)으로 성장. P/Q 동반 성장 제품군에 HVDC/스위치기어/변환 및 저장 부문 언급. Electrification 침투 가능 시장은 30년까지 두 배의 시장규모로 확장(`24 ~$ 40B -> `30 ~$ 80B)될 것으로 전망. 수요 증가 요인은 1) 전기화, 2) 데이터센터, 3) 디지털/분산화/주파수 지원 중요성으로 언급. 향후 **중/저압 R&D 투자 확장 통해 데이터센터 고객 확보 타겟.** 특히 Q&A 세션에서 CEO는 다음과 같이 언급.

'특정 산업/데이터센터 특화된 전기 장비를 갖춘 통합 솔루션 등장하며, Power-to-Rack 솔루션 함께 개발하자는 제안 쏟아지는 중. 저전압 솔루션에 더 많은 투자할 의향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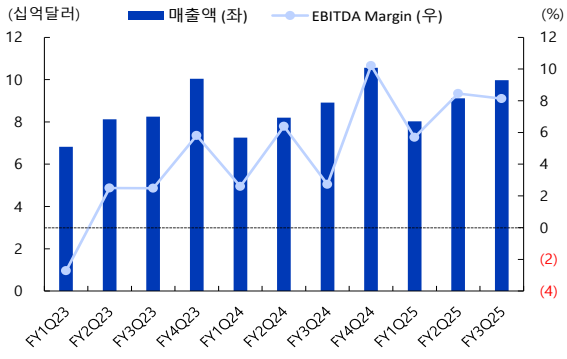
Gas부문 매출액 $ 483.8억(+15% YoY), EBITDA $6.5억(+29% YoY, Margin 13.3%) 기록. 3Q25 기준 수주/슬롯 예약 합산 62GW(잔고 33GW, 슬롯 예약 29GW), 연말 70GW 근접 예상. 슬롯 예약 29GW는 가격·마진 더 높은 계약이며, 주문으로 전환 시 수익성 좋아지는 구조. 동시에 경영진은 이전 사이클 피크 수익성 중장기적으로 상회할 것으로 전망. 데이터센터 부하 증가 대응으로 모듈형 전력원(에어로/소형 GT, 연료전지 등) 수요 급등 언급. 그러나 **경제성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대형 프레임 GT이 기저부하 전원으로 우월**하여, 소형/에어로는 단기 브릿지, 백업 전원 역할 대체 전망.

[도표 12] CY3Q25 서프라이즈율

($, 백만$)	발표	컨센서스	*괴리율 (%)*
EPS, 조정	1.64	1.75	*-6.1*
EPS, GAAP	1.64	1.86	*-11.8*
매출액	9,969	9,167	*8.7*
순이익	453	493.3	*-8.2*
EBITDA	811	797.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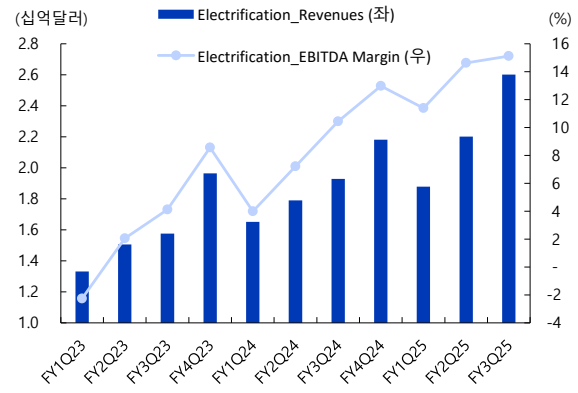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3] 분기별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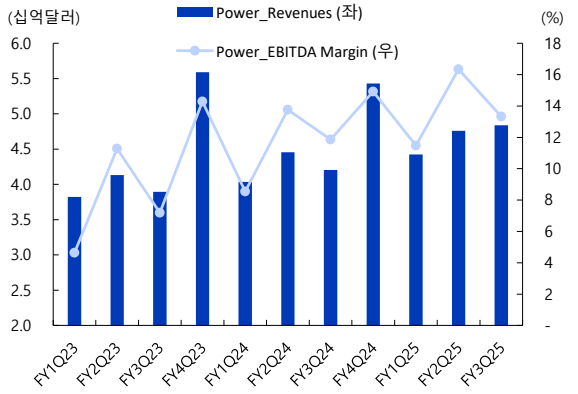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4] Electrification 부문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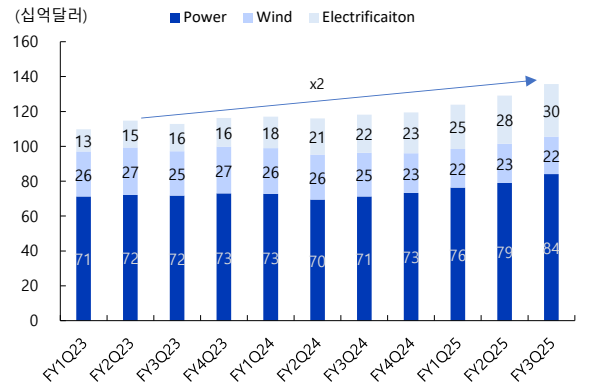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5] Power(gas) 부문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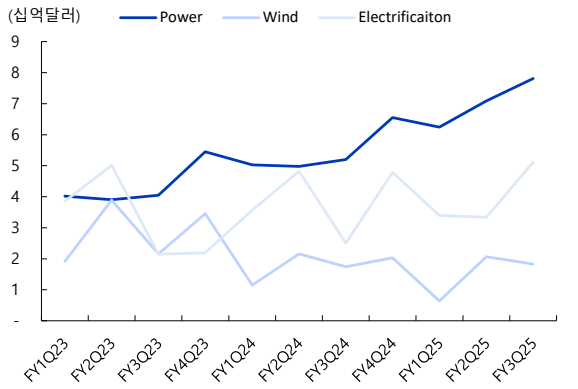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6] 부문별 수주 잔고 추이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7] 부문별 신규 수주 추이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8] GEV 글로벌 생산 시설

자료: GEV,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Siemens Energy: 구조적인 레벨의 변화

Siemens Energy는 FY25 마무리하며, 25년도가 회사에게 **'구조적으로 레벨이 바뀐 해'** 로 인식한다고 언급. 4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했으나, 시장은 중기 가이던스 상향 및 긍정적 시장 전망에 주목.

25년 주요 실적은 매출액 €39.1bn(+15% YoY), Profit before SI(특별항목 제외 이익) €2.4bn(+583% YoY, Margin 6.0%). 연간 수주 €60bn(+19% YoY), 수주잔고 €138bn(+12.2% YoY) 달성. 시장이 주목한 것은 가이던스 조정. **FY28까지 매출액 연평균 Low-Teen 성장, 수익성 14-16% (기존 대비 +4%p)로 대폭 상향**. GS·GT부문 과거 대비 마진 5~6%p 상향하였으며, 이는 Y26 매출의 85%+, FY27의 ~60%가 이미 잔고기반 실적으로 가시성 높은 가이던스임을 강조.

GS(Gas Service) 부문: FY25 터빈 인도 대수 194기(+94% YoY)로 두배 수준 기록. 연간 수주/예약은 54GW (주문 26GW + 예약 28GW), 12GW가 데이터센터향 수주. Book-to-bill 1.89, 백로그 €54bn(사상 최대)으로 가장 좋은 시기를 지내고 있음을 강조함. 시장이 놀랐던 28년 가이던스 상향 조정(18~20%)은 시장 수요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며, **효율성 개선/학습 효과(2~3년전 대형 HL급 터빈 첫 도입)와 가격효과가 더해진 영향.**

GT(Grid Technologies)부문: FY25 하이퍼스케일러向 매출 $2bn에 육박, 전년 대비 2배 이상 수준. Capital Makret Day에서 GT에 대한 중장기 전망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1) 송전망은 2035년까지 현재의 약 두 배로 확대, 2) 선진국의 설치 변압기 80%는 향후 10년 안에 내용 연수 만기, 3) 업계의 CAPA 확장 속도는 과투자 우려할만한 상황 아님, 4) 대형 부하의 역동성(Dynamic)에 맞추기 위한 유연성(Flexible) 자산 수요 증가(FACTS, STATCOM, HVDC).

차주 이어진 Capital Day에서 CEO인 Jamarin은 산업이 가질 기회에 대해 은유적으로 언급함.

"우리가 맞이한 이 기회는 우리 세대의 '달 탐사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규모로 다시 짓기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큰 규모로, 정말 빠르게 말이죠"

[도표 19] CY3Q25 서프라이즈율

(€, 백만€)	발표	컨센서스	*괴리율 (%)*
EPS, 조정	0.19	0.26	-27.2
EPS, GAAP	0.19	0.25	-23.1
매출액	10,428	10,326	1.0
순이익	168	202	-16.8
EBITDA	698	837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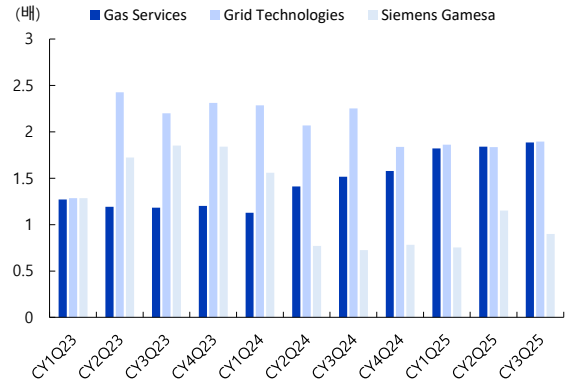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0] 중기 가이던스 제시

(십억€, %)	FY25 Actual	FY26 Outlook	FY28 Target
매출액	39.1 (+15.2% YoY)	11-13	Low-teens
Profit margin before SI	6.0 (+5.0%p YoY)	9-11	14-16
당기순이익	1.7 (+€0.4bn YoY)	3-4	
FCF pre tax	4.7 (+€2.8bn YoY)	4-5	
Book-to-bill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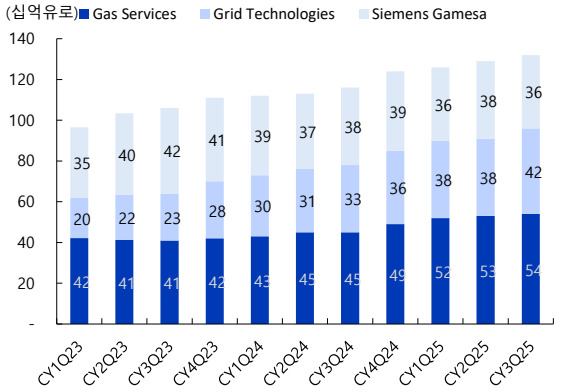
자료: Siemens Energy,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1] 부문별 12M-Rolling Book-to-bill R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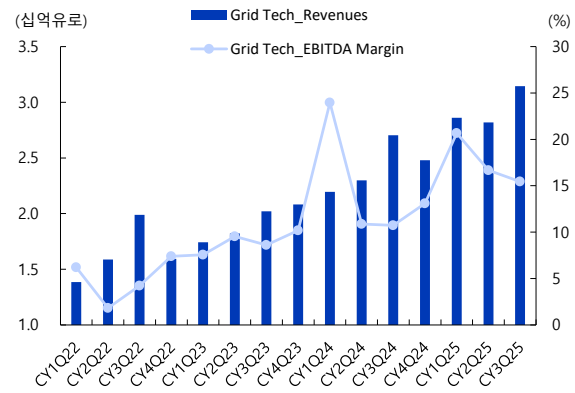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2] 수주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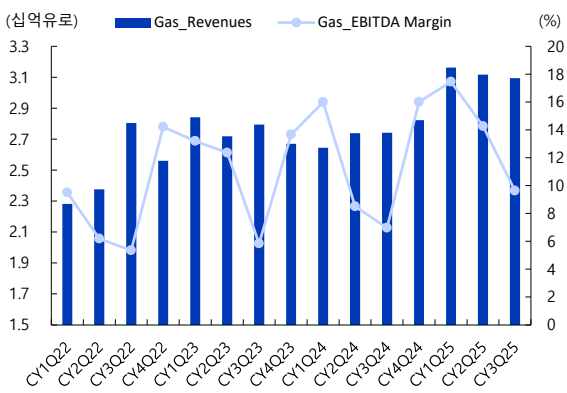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3] Grid Technologies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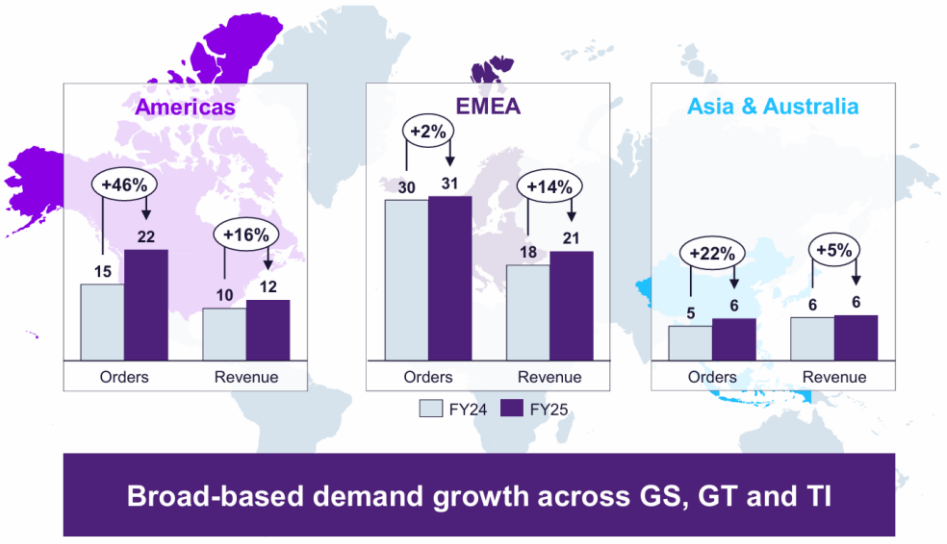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4] Gas services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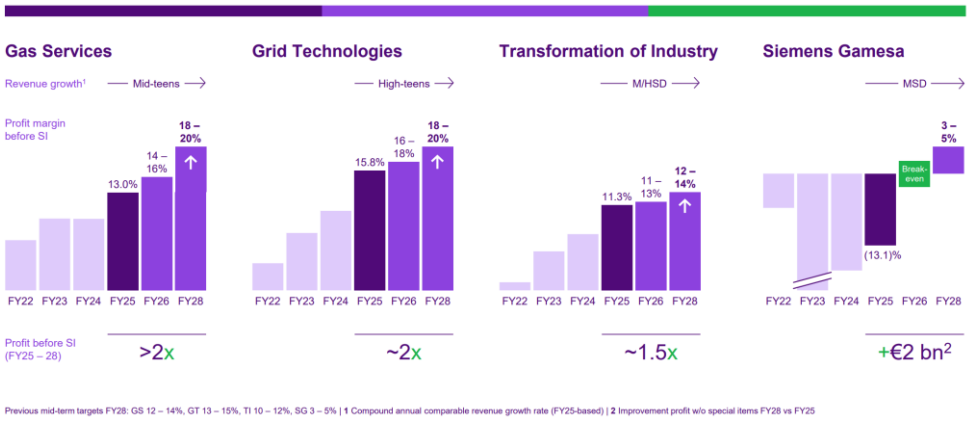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5] FY25 전지역에서의 수주/매출 확장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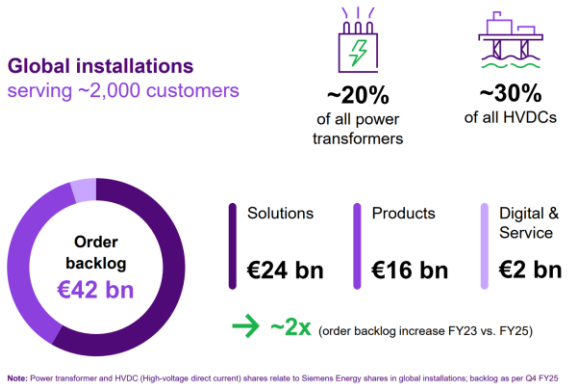
자료: Siemens Energy,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6] Capital Market Day: 부문별 마진 가이던스 업데이트; GS +6%p, GT +5%p, TI +2%p, SG Fl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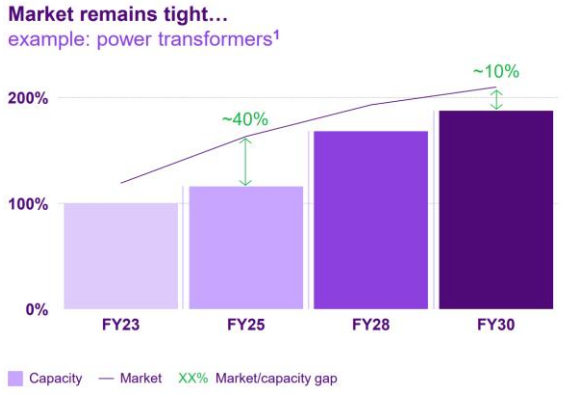
자료: Siemens Energy,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7] Capital Market Day – GT:
Tier1 잔고 비중 Solution(HVDC, 변전소, 안정화) 위주 구성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8] Capital Market Day – GT:
미국/유럽 전력 변압기 수급 전망 – 30 년에도 여전히 불균형



자료: Siemens Energy,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9] Capital Market Day – GS:
1 년간 신규 수주, 대수 기준 +94% YoY, GW 기준 +63%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0] Capital Market Day – GS:
수주 확장에 맞는 GW 급 CAPA 확장 지속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Hitachi: 제품에 이은 서비스 확장 개연성 제시

FY2Q25(CY3Q25) 매출액 2.5조엔(+8.3% YoY), 조정 EBITA 3,242억엔(+36.2% YoY, Margin 12.8%) 기록. 조정 EBITA·분기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수준으로 에너지와 IT(DSS의 Domestic front business)가 견조한 영향. FY25 가이던스 전 영역(매출/이익/현금흐름/ROIC) 상향 조정.

Energy 부문: 매출액 7,508억엔(+26.8% YoY), 조정 EBITA 942억엔(+113.1% YoY, Margin 12.6%) 기록. Hitachi Energy 수주는 신규수주 1.0조엔(+12.8% YoY), 잔고 7.3조엔(+37.7% YoY), Book-to-Bill Ratio 1.4x, 12M Trailing 1.6x 기록. 현수요 수준에 대해 CEO는 다음과 같이 언급.

"강한 전 세계 전력망 투자 수요가 전기화(EV), 노후 설비 교체, 재생에너지 계통 안정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로 인하여 촉진되고 있으며, 최소 30년, 최근에는 3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판단 중"

추가적으로 미국 상무부 전력망 관련 MOU 체결 통해 미국 확장 이어질 것을 밝혔으며, 기 발표된 미국 내 $ 10억 규모 증설 외 추가 투자 검토하고 있음을 언급. 그럼에도 수요 전망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의 투자가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투자자들은 인식(Q&A)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업계가 수십 년간의 침체와 과거 공장 폐쇄에서 회복하고 있는 중으로 인력/시설 등 확보 어려움'으로 답변.

서비스(Service) 확장에 대해서 강조. 전력망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플레이어 증가에 기인. 특히 **신규 플레이어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서비스를 운영하기보다 '짓고, 소유하고, 유지한다(Build it, Own it, Maintain it)' 문화를 통해 단지 '잘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언급. 기존 유틸리티와 다른 특성으로 서비스 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 중전압(Mid-Voltage)에 대해서도 강조.

"다음 단계의 발전(Level up)은 배전 관리 시스템 수준, 즉 그리드 엣지(Grid Edge)에서 일어날 것 … ESS와 태양광 발전은 더 이상 고전압 인프라에만 국한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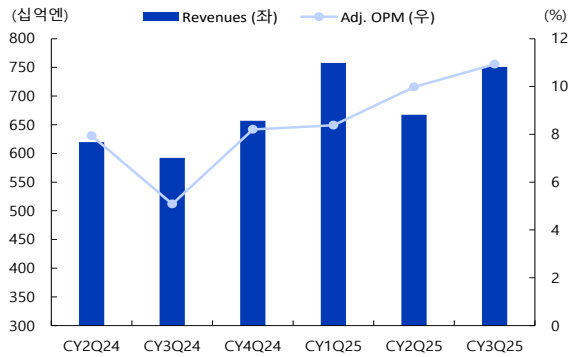
가장 큰 리스크로는 고객 측에 달려있다는 언급도 주목 필요. 고객들의 자본 조달 니즈가 높아지며, 금융 시장이 단일 산업에 투입할 자금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기술적인 측면에서 리스크는 제한적이나, 거시경제 요인과 자본 조달은 현실적인 도전 과제가 될 것.

[도표 31] CY3Q25 서프라이즈율

(엔, 십억엔)	발표	컨센서스	*괴리율 (%)*
EPS, 조정	61.7	40.4	52.8
EPS, GAAP	61.7	40.4	52.8
매출액	2,529	2,446	3.4
순이익	280.7	181.1	55.0
EBITDA	519.6	301.4	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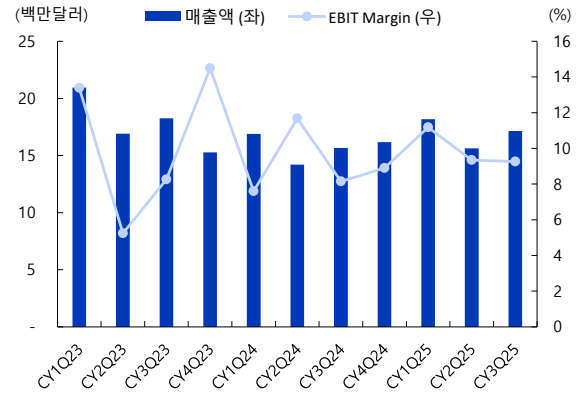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2] Energy 세그먼트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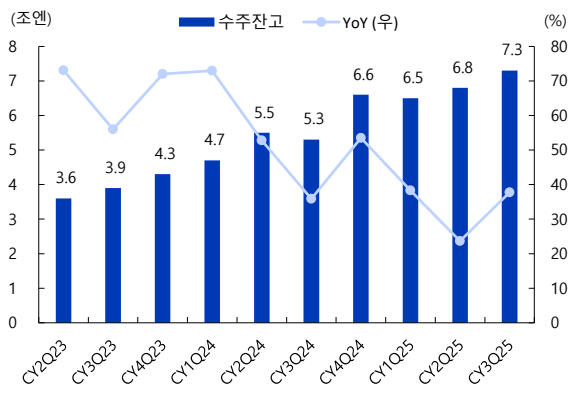
자료: Hitachi,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3] Hitachi 분기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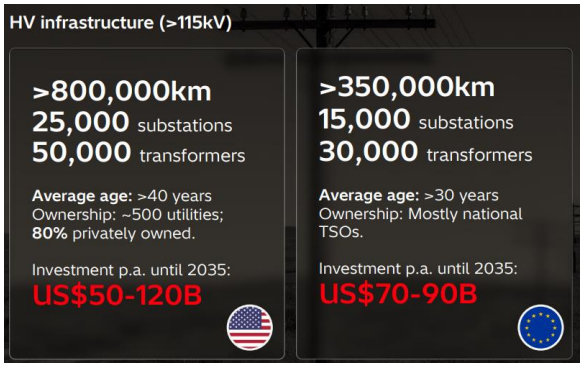
자료: Hitachi,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4] Hitachi Energy 분기 수주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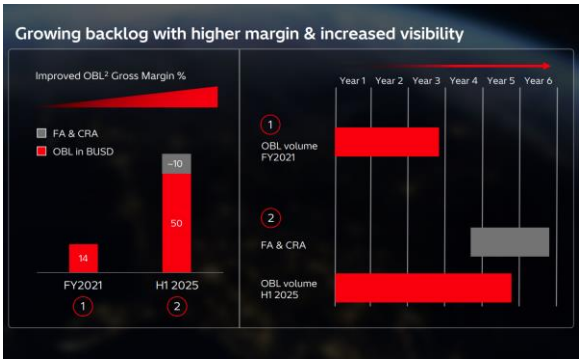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5] Hitachi Energy Investor Day:
HV 인프라(>115kV) 30~35 년까지 교체 투자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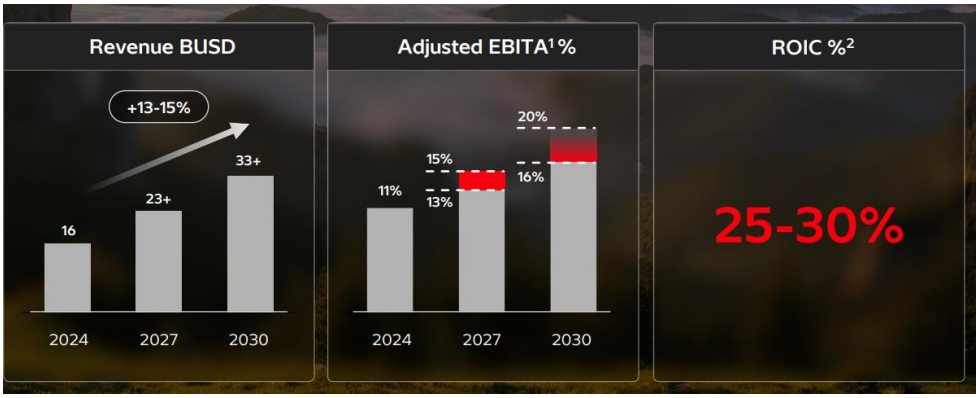
자료: Hitachi,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6] Hitachi Energy Investor Day:
OBL(수주잔고) + FA(LTA; 장기 계약) 통해 5 년+ 가시성 확보



자료: Hitachi,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7] Hitachi Energy Investor Day; 30 년 중기 전망: 매출액 +13~15% cagr, EBITDA Margin +7.5%p



자료: Hitachi,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Quanta Services: 완전 통합형 솔루션 플랫폼 확장 중

Quanta Services의 3분기 실적 $ 76.3억(+17.5% YoY), 영업이익 $ 5.2억(+20.0% YoY, OPM 6.8%)로 고성장 추세 이어짐. 수주잔고 391.7억(+15.3% YoY), Forward 12M 반영될 잔고 $223.1억(+16.6% YoY)으로 현재 Trailing 12M 매출액 $220.0억 대비 확장 이어나갈 것으로 추정.

회사가 강조하는 것은 기존 Total Solution 플랫폼 확장하여, Total Solutions Power Generation Platform 통해 **완전 통합형 솔루션(Fully integrated Solution) 제공.** 가능하게 된 기반은 수직계열 공급망 위한 M&A 전략. 수직 통합 공급망을 공격적으로 형성 중. 24년부터 진행한 주요 M&A는

1) 24년 7월 Cupertino Electric $17.4억(인수액/25E EBITDA 9.4x) 인수, 전력/데이터센터 등 저압 전기플랫폼 사업 영역 영위. 2) 25년 7월 Dynamic Systems를 $15.7억(인수액/26E EBITDA 10.2x)에 인수 기계/배관 역량 통해 데이터센터/쿱/하이테크 턴키 업체. 3) 24년 9월 전력변압기 사업 영위하는 Niagara Power Transformer 인수. 해당 인수 결과 통해 데이터센터 셸(shell), BOP(Balance of Plant) 단계까지 수행 가능한 역량 확보.

주목할만한 수주로는 NiSource PJT(2.6GW CCGT + 400MW ESS + 송/배전 인프라, 총 규모 $6~7B) 존재. 엔지니어링社 Zachry와 JV 구성을 통해 대규모 수주 성공. 이미 잔고 지속적으로 확장중이나, NiSource 및 기타 대규모 PJT(765kV, 가스/파이프라인 등)는 아직 잔고에 들어오지 않아 추가 성장 가시성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자신. 동시에 회사는 현재 모든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가 On Site 발전과 같이 속도에 있으며, 하나의 파트너(one person)와 함께 일하고 싶어한다고 언급.

"현재 모든 이해관계자의 최우선 과제는 '속도(Speed)'... 단순 사이클, 태양광, 배터리, 복합화력, 리드타임과 엔진 확보 여부 등 모든 요소에서 '누가 더 빨리 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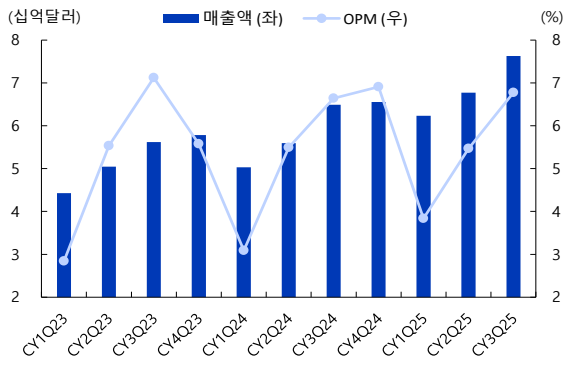
대규모 부하에 대한 리테일 고객들의 요금 전가 논란 및 수용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 여러 사례에서 대형 부하 고객이 들어오면, 오히려 일반 요금제 고객이 혜택을 보는 구조 많음을 강조. 다만, 새로운 부하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기술 기업-규제기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으로 현재 이러한 모델들이 자리잡고 있음에 따라 진행속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 중.

[도표 38] CY3Q25 서프라이즈율

($, 백만$)	발표	컨센서스	*괴리율 (%)*
EPS, 조정	3.3	3.3	*1.9*
EPS, GAAP	2.2	2.3	*-1.1*
매출액	7,631	7,399	*3.1*
순이익	504	494	*2.1*
EBITDA	858	827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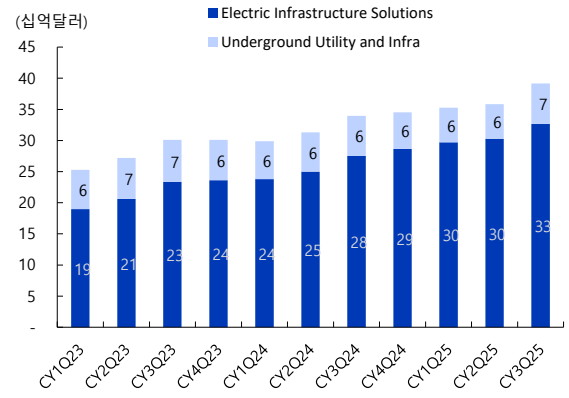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9] 분기별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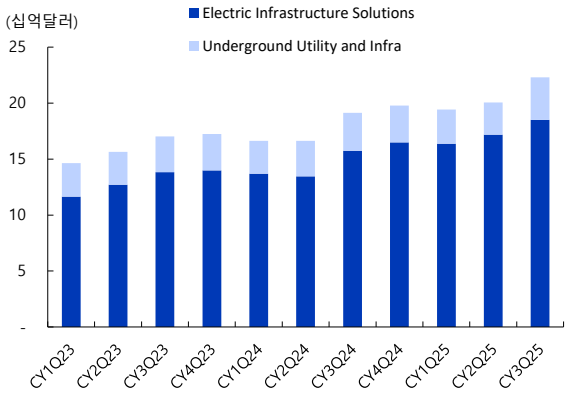
자료: Quanta Service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0] 분기별 수주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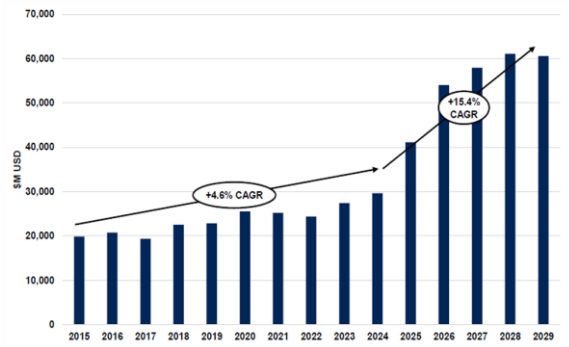
자료: Quanta Servic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1] 향후 12 개월 반영 예정 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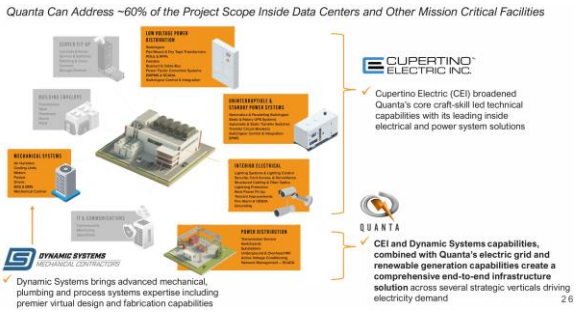
자료: Quanta Servic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2] 미국 민간 유틸리티社 송전 CAPEX 전망



자료: Power Insight, Quanta Servic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3] Quanta Service: 인수 통한 Tech & Infra 솔루션 확장



자료: Quanta Servic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4] Supplemental Revenue Disclosure

주요 시장 (Key Markets)	Quanta 매출 비중 (2024 년)	2025 년 예상 매출 성장률	전망 해설 (Outlook Commentary)
송배전망 및 가스 유틸리티	~ 50%	~ 10%	* 부하 증가 및 인프라 현대화가 사업 성장 주도. 전력망 활동이 가스 유틸리티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대규모 초고압 송전 프로젝트 기회가 점점 더 가시화.
발전 및 에너지 저장	~ 25%	~ 25%	* 유기적 성장과 Cupertino Electric 인수 통해 성장. 특히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 분야 강점. * 부하 증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기술 및 부하 센터 (데이터 센터)	~ 5%	100 ~ 105%	* Cupertino Electric 의 전체 회계연도 매출 및 Dynamic Systems 의 부분 회계연도 반영으로 인한 강력한 성장. * 데이터 센터의 대규모 다년 건설 프로그램이 Quanta 의 Addressable Market 을 의미 있게 확장 중.
통신	~ 5%	-15 ~ -10%	* 통신 매출 2024 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 매출 성장이 아닌 고품질의 수익성 있는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 선별적인 접근 방식 유지. * 향후 BEAD 통해 인프라 지출 촉진으로 성장 전망.
산업 및 기타	~ 10%	~ 30%	* 일반적인 규모의 반복 유지 보수 활동 수준. * 2025 년 토목 사업 인수가 기타 솔루션 부문의 성장 주도.
파이프라인 서비스	~ 5%	-15 ~ -10%	* 프로젝트 일정으로 인해 대규모 기회가 전년 대비 감소. * 무결성 서비스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

자료: Quanta Servic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Hubbell: 채널 재고 정상화, 진행되고 있는 수주 강세

매출액 $15.0억(+4.1% YoY), 영업이익 $3.3억(+5.7% YoY, OPM 2.0%) 기록.

유틸리티 솔루션 부문 매출액 $9.4억(+1.1% YoY), 영업이익 $2.2억(+0.0% YoY, OPM 23.2%)로 부진한 성과 실현. 전력망 자동화(Grid Automation) 부문에서 -17% YoY 역성장이 주요인이나, 송전/배전 영역 두 자릿수 성장 통해 제한적 영향. 전기 솔루션 부문 매출액

당분기 강조한 내용은 10월초 DMC Power를 $8.3억에 인수한 것. 26년 기준 EBITDA $0.6억으로 인수액/EVITDA 13.7x 수준. 피인수 기업은 고성장 부문인 변전소 시장에서 독특한 기술 솔루션(스웨이지 커넥터) 제공. 향후 추가적인 M&A 진행할 것도 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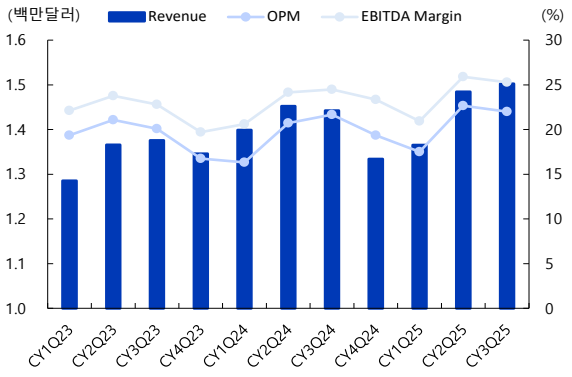
국내 투자자로써 관심 가질 부문은 T&D 부문 주문이 강하게 증가했다는 점. 이로 인해 4Q25 전사 성장률을 +8~10%로 제시. 이는 Eaton의 어닝콜 내용과 동일. 9~10월 주문 강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계속된 관세 -> 맞춘 가격 인상 -> 예산 재조정의 영향으로 연내 누적되어 있던 이연수요 반영이 발생 중임을 강조. 유틸리티사 고객사의 투자 부문에 대해서도 T&S(송전, 변전) 영역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D(배전) 영역도 동시에 성장할 것으로 전망.

[도표 45] CY3Q25 서프라이즈율

($, 백만$)	발표	컨센서스	*괴리율 (%)*
EPS, 조정	5.2	5.0	*3.9*
EPS, GAAP	4.8	4.6	*4.4*
매출액	1,502	1,534	*-2.1*
순이익	277	266	*4.1*
EBITDA	380	38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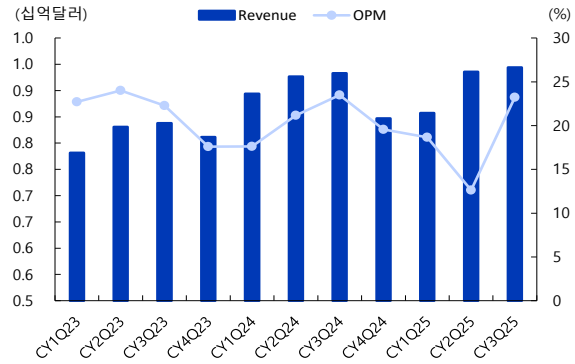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6] 분기별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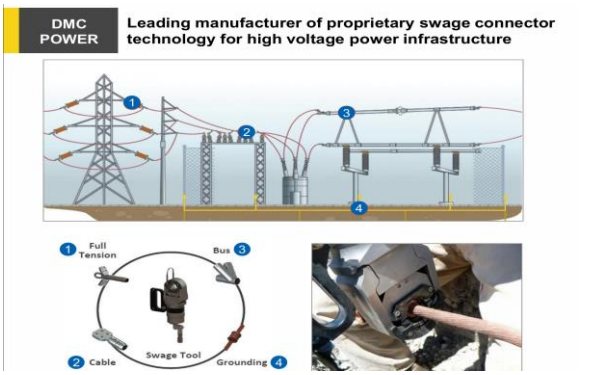
자료: Quanta Service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7] Utility Solution 실적 추이



자료: Hubbell,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8] DMC Power 제품 사용처



자료: Hubbell,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BB: 다른 접근법 제시 – Best in Class

매출액 €91억(+ 11.4% YoY), EBITA $17억(+ 11.9% YoY, Margin 19.2%)로 성장 지속. 신규 수주 €91억(+ 11.6% YoY)으로 견조한 성장 이어가는 중. Electrification 부문 매출액 €45억(+ 15.0% YoY), EBITDA €11억(+ 16.5% YoY, Margin 24.4%), 중전압 및 단주기 사업 개선 영향. 신규 수주 €45억(+ 11.7% YoY)으로 데이터센터(두 자릿수 성장)/상업용 빌딩/유틸리티 수요가 긍정적 영향.

당분기 주목할 부분은 **미국 Electrification 부문 마진 성장 가능성 제시 및 Robotics 사업부 매각.** Electrification부문 미국 지역 수익성은 글로벌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1) 로컬 생산 위한 CAPA 확장, 2) 자동화 투자, 3) 가격/믹스 개선 통해 구조적 마진 개선이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 Robotics 부문은 소프트뱅크에 $54억 매각 결정. 26년 하반기 종료 예정이며, 현금 유입 통하여 Electrification/Automation/Motion 부문 확장위한 공격적 M&A 펼칠 것을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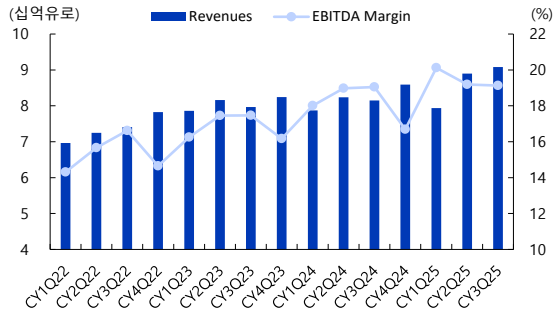
데이터센터 밸류체인 내에서 End-to-End 공급자보다는 선택적(Specialist) 공급자로 남는 것을 선택.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원스톱샵 혹은 특정 패키지 특화 공급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프로젝트를 여러 패키지로 나눠 발주하기 때문. 하나의 업체가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이점이 크지 않다고 판단 중으로 **회사가 제공 가능한 패키지의 기술 측면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best in class)'가 되는 것을 목표.** NVDIA 800V DC에 대한 언급은 장기적인 이야기로 여러 해에 걸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30년 이후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언급.

[도표 49] CY3Q25 서프라이즈율

(€, 백만€)	발표	컨센서스	*괴리율 (%)*
EPS, 조정	0.7	0.7	*-2.2*
EPS, GAAP	0.7	0.6	*3.3*
매출액	9,083	8,912	*1.9*
순이익	1,235	1,186	*4.1*
EBITDA	1,877	1,842	*1.9*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0] 분기별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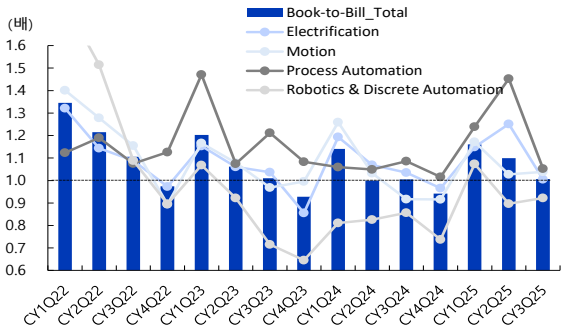


자료: ABB,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1] 분기별 수주 추이

자료: ABB,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2] 부문별 Book-to-Bill Ratio



자료: ABB,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유틸리티

AEP: 송전망 확장 통한 고객 확장 기대 중

5개년 중기 CAPEX 계획(2026-2030) $720억(이전 대비 +30%)으로 상향 조정. 2/3 이상이 송전/발전부문으로 대형 부하 대응을 위함. 2030년 피크 수요는 65GW로 현재 37GW 대비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 증가하는 부하의 80% 데이터센터/하이퍼스케일러, 20% 신규사업 부문. 신규 수요 28GW는 190GW의 고객 관심(Interest) 중 LOA/ESA 등 재무적 계약분만 추린 보수적 수치. 동시에 회사가 보유한 765kV 송전망 2,100마일은 미국 전체의 90% 수준. ERCOT Permian Basin, PJM으로부터 765kV 고압 백본망 수주 받아 확장에 따른 수혜 이어 나갈 것 자신.

규제/입법 환경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Ohio HB15(Multi-year Forward-looking test period + True-up), Oklahoma SB998(비용/세금 유예), Texas HB5247(요금 고객 제외한 전용 비용 체계). 통해서 CAPEX-회수 시점의 래깅 최소화로 투자 촉진 위한 법안 다수 통과 중. **동시에 여러 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대형부하/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 승인 및 조정이 발생.** 대부분의 방식은 대형 부하가 야기하는 그리드 투자 비용을 대형 부하원에서 부담하도록 설계하는 형태. 주거 요금 인상률은 2026~2030년간 연평균 3.5%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4%+ 보다 낮은 수준 유지 목표.

** Formular Rate: 규제기관이 승인한 자동 요금 산식*
** Forward-looking test year: 향후 전망 시기 동안의 예상 비용/투자 기준으로 요금 산정.*
** True-up: 사후정산*

Southern Co: Minium Bill - 가짜 수요 배제 시작

3Q25 계절조정 전력 판매량 2.6% YoY, 데이터센터 포함된 상업용 부문은 +3.5%, 데이터센터 단일 영역은 +17% YoY 기록하며, 견고한 판매 성장 보이는 중. 대형 부하 파이프라인은 2030년대 중반 기준 잠재 파이프라인 50GW 이상 추정되나, 일부만을 보수적으로 전망치 반영. 2030년대 중반 부하 증가 전망치 12GW로 QoQ 2GW+ 증가한 수치. 현재 계약 임박한 규모도 약 12GW 수준.

계약 구조에 대해서 Minium Bill 형태 강조. Georgia PSC(조지아 공공서비스 위원회)의 새로운 정책하에 **Minium bill 구조는 사용량 없어도 최소요금으로 모든 비용 회수하도록 설계. 기반설비 고정비 등을 최소요금으로 회수하여 기존 고객 보호 목적.** 신용도 높은 하이퍼스케일러·대형 제조사만 전면에 나오게 하고, 투기·단기 수요는 걸러내는 효과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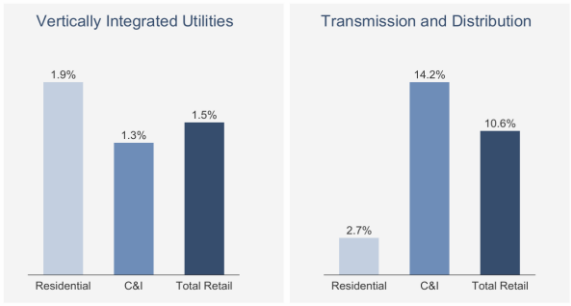
Xcel Energy: 공급망 전략 – 선조달 후 배치 계획 수립

5개년 중기 CAPEX 계획 $600억(이전 대비 33.3%)으로 상향 조정. 조정폭이 높은 부분은 신재생 및 발전 부문(신재생 +177%, 발전 +113%). 이는 RFP 통과 등 통해 불확실성 제거된 요인. 전망 후반기(2029-2030) CAPEX 감소 요인 역시 RFP 통과 이전 단계임에 따라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보수적 추정의 결과. 실제 CAPEX는 이보다 늘어날 수 있음을 암시.

데이터센터 수요는 기존 Base 계획상 부하 3GW로 상향 조정, High-Probability Pipeline에 존재하는 2GW 용량 계약 가시성이 높아진 영향. 데이터센터는 2030년까지의 연평균 전력 판매 증분 5% 중 3% 견인하는 요인(나머지 1.5% 석유/가스, 0.5% 주거). 20GW 잠재 물량 논의도 지속 중. 다만, 'Speed to Power'가 주요한 상황에서 대형 부하 수요 충족시키 위한 주요 설비 공급 여건 쉽지 않은 상황. 파해하기 위한 전략은 주요 파트너들을 Capex 계획에 **역으로 통합(Backward Integrated) 하는 방식; 장기계약을 통해 선제적으로 조달 가능 용량 확보 이후 이를 Capex 계획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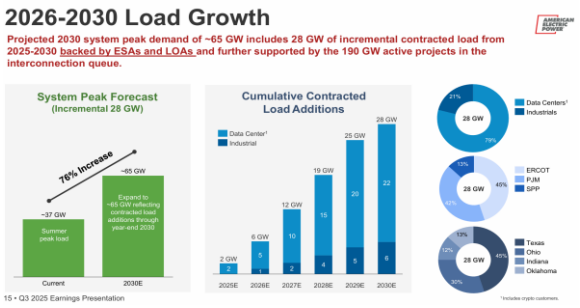
대규모 부하 고객이 추가 발전/송전 필요로 할 경우, **필요한 CAPEX의 100%를 해당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고수.** 구체적으로는 소매 고객이 부담하는 Rate Base가 아니라, 별도의 ESA(Energy Supply Agreement) 혹은 대형 수요고객 전용 요율(Large Load Tariffs)를 개발하여 분류. 현재까지 개발사/하이퍼스케일러는 빠르게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비용 수용성 매우 높은 수준.

[도표 53] AEP: Rolling-12M 부문별 전력 판매량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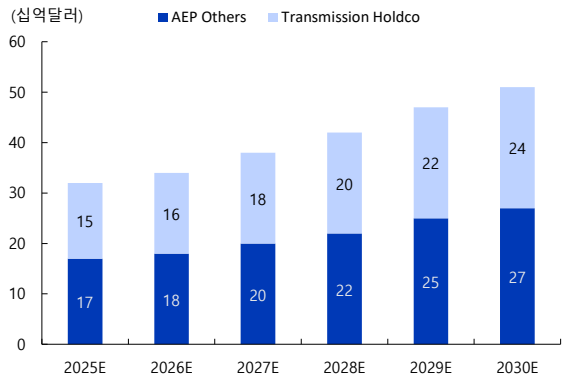
자료: AEP,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4] AEP: 신규 수요 증분(28GW) 79% IDC 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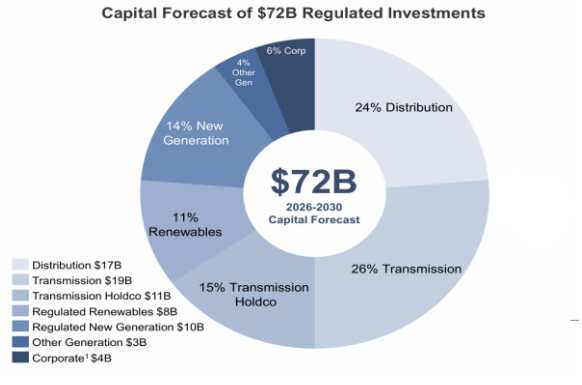
자료: A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5] AEP: 송전(Transmission) 규제자산 수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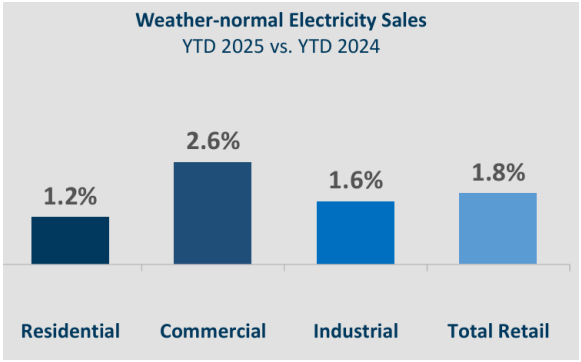
자료: AEP,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6] AEP: 26-30 부문별 CAPEX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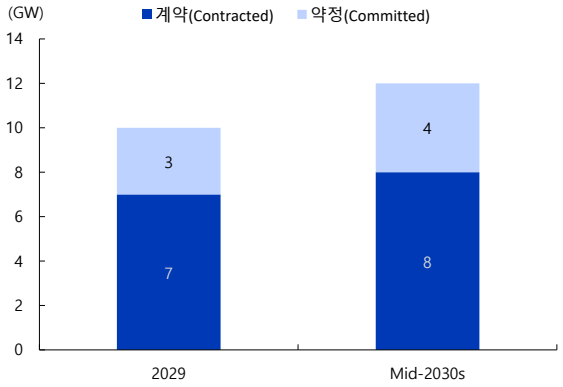
자료: AEP,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7] Southen Co: YTD 부문별 전력 판매량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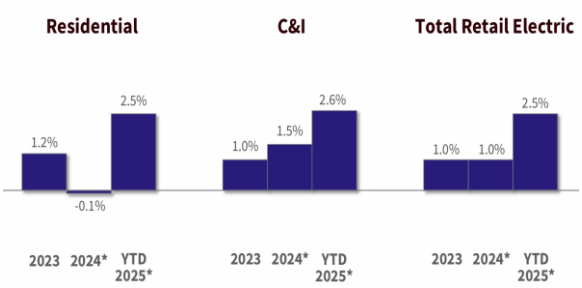
자료: Southern Co,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8] Southern Co: 대규모 부하 업데이트 (3Q25 +2G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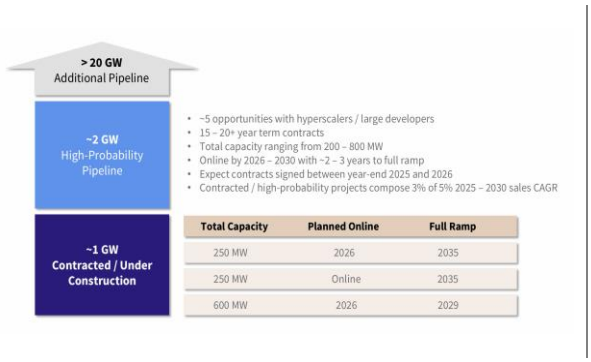
자료: Southern Co,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9] Xcel Energy:
날씨 조정 전력 판매량 증감률 – C&I +2.6%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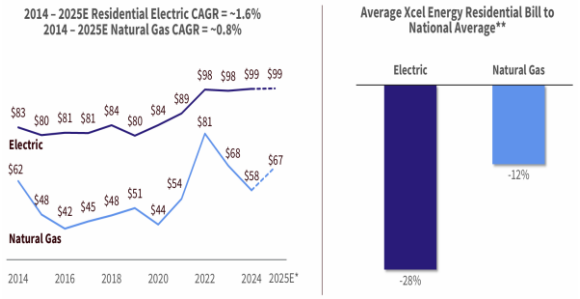
자료: Xcel Energy,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0] Xcel Energy:
데이터센터 파이프라인 –2GW 용량 2 분기 내 계약 전망



자료: Xcel Energy,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1] Xcel Energy: 주거용 요금 인상율 낮은 수준 유지 중



자료: Xcel Energy,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2] Xcel Energy: 부문별 CAPEX 전망 (백만달러)

부문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전력 송전	3,060	2,930	2,890	3,190	3,370	**15,440**
신재생	3,560	4,620	3,380	1,150	1,210	**13,920**
전력 배전	2,920	3,250	2,930	1,680*	2,930	**13,710**
전력 발전	2,220	2,420	2,500	1,810	590	**9,540**
천연가스	860	830	700	650	680	**3,720**
기타	1,170	1,080	250	540	630	**3,670**
총계	**13,790**	**15,130**	**12,650**	**9,020**	**9,410**	**60,000**

자료: Xcel Energy,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전선사

Prysmian: 실적보다 더 가파른 체질 개선

3Q25 실적은 매출액 €50.3억 (+10.7% YoY), 조정 EBITDA €6.4억(+19.2% YoY, Margin 14.8%)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달성.

Transmission(송전; 해저, 지중): 매출액 €8.7억(+39.0% YoY), 조정 EBITDA €1.5억(+65.2% YoY, Margin 17.8%), 수주잔고 €160억 유지. 28년 송전 EBITDA €10억, 마진 상단 20.5% 제시.

Power Grid(지상 송배전): 매출액 €9.9억(+14.8% YoY), 조정 EBITDA €1.3억(+5.0% YoY, Margin 14.7%). 관세 영향에 따른 알루미늄 가격 상승으로 고정가로 계약된 PJT 수익성 훼손 진행. 몇 달간(Few Months) 잔고 소진 이후 1Q26부터 정상화 추정.

Electrification(End-Use향; Industrial&Construction, Specialty): I&C 부문에서 미국 매출액 +10%, EBITDA +15%로 호조, 반면 자동차·엘리베이터 등 Specialties 부진 지속.

Digital Solutions(통신): 매출액 €4.5억(+41.6% YoY), 조정 EBITDA €0.9억(+95.6% YoY, Margin 19.6%) 기록. 미국 인클로저(Enclosure) 및 관리시스템 제품군 보유한 Channell 편입효과로 Margin 20% 수준으로 유지 전망. 당 분기 편입으로 인한 EBITDA 증분 0.4억 유로 발생.

데이터센터 관련: YTD 매출액 전년 대비 2배, 미국 I&C 매출의 25%, 미국 디지털 물량의 40%가 데이터센터向. 미국 외 지역에서도 성장 나오고 있으나, 미국 정도의 수준은 아님. 미국 내 광섬유 공급 부족 현상 뚜렷하며, 가격 인상 사이클 지속되고 있어 중장기 성장·마진 드라이버로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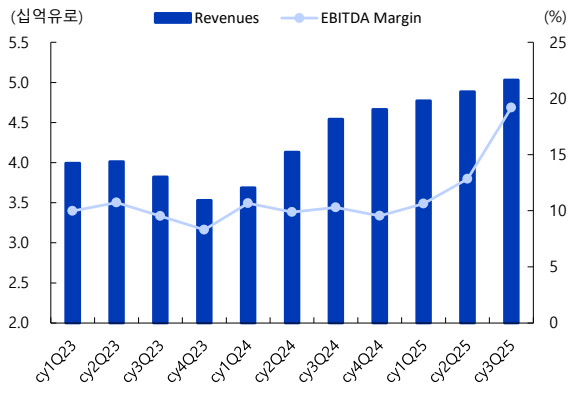
관세: 미국 232조 관세는 8/18부터 알루미늄 케이블 금속함량에 50% 부과되며 수입업체 경쟁력 훼손. 25년 편입한 Encore 통하여 생산능력 증분 가능한 Prysmian의 점유율 확대 전망. 관세 효과에 따른 I&C·그리드 마진 추가 레벨업은 미국 내 수요-공급 밸런스에 달렸고, **알루미늄 외에 구리 케이블 관세 확대 영향은 26년 1Q 이후 중압/배전/HVAC 사업에 영향 끼치게 될 것**으로 판단.

[도표 63] Prysmian: CY3Q25 서프라이즈율

(€, 백만€)	발표	컨센서스	*괴리율 (%)*
EPS, 조정	5.2	5.0	*3.9*
EPS, GAAP	4.8	4.6	*4.4*
매출액	1,502	1,534	*-2.1*
순이익	277	266	*4.1*
EBITDA	380	38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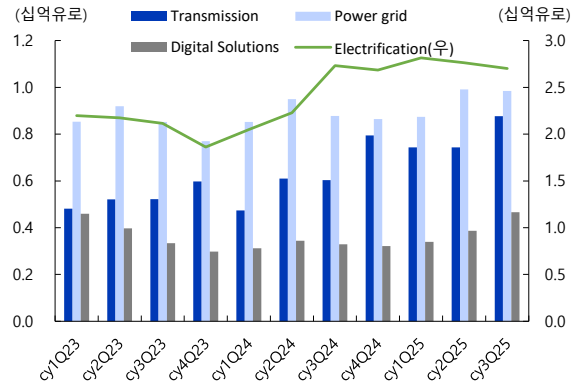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4] Prysmian: 분기별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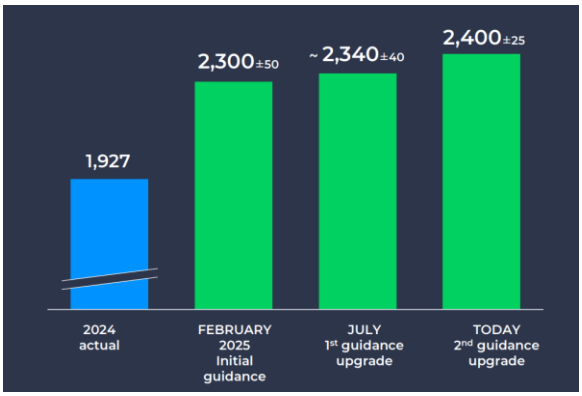
자료: Prysmian,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5] Prysmian: 부문별 매출액 추이



자료: Prysmian,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6] Prysmian: EBITDA 가이던스: 연초대비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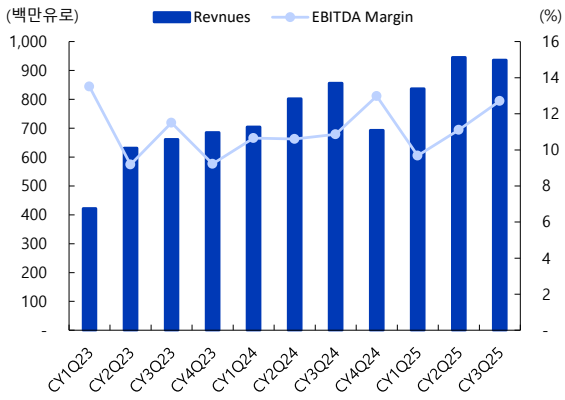
자료: Prysmian,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7] NKT: CY3Q25 서프라이즈율 – 일회성 PJT Suprise

(€, 백만€)	발표	컨센서스	*괴리율 (%)*
EPS, 조정	1.2	0.9	33.3
EPS, GAAP	1.2	0.9	32.2
매출액	936	884	5.9
순이익	65	53	21.6
EBITDA	119	95	25.4

자료: Prysmian,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8] NKT: 분기별 실적 추이



자료: NKT,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기준일자_2025.09.30

구분	Buy(매수)	Trading Buy(매수)	Hold(보유)	Sell(매도)
비율	94.7%	3.8%	1.5%	0.0%

[업종 투자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Underweight(비중축소):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Neutral(중립):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향후 6개월 기준, 2015.6.1(Strong Buy 등급 삭제)

Buy(매수):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이상
Trading Buy: KOSPI 대비 10%이상 초과수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Hold(보유):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
Sell(매도):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